

귀촌일기-가을준비

아침을 열며

박찬규
에코특수가치연구소
이사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맞이를 준비하는 계절이 도래했다. 올 여름은 저녁에도 더위가 심한 열대야가 계속되어 과일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는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했다. 고랭지 배추 농사는 폭염으로 신음했고 작황은 부진한 편이었다. 다만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벼농사와 노지의 과일 농사의 경우 풍작을 예상하고 있다. 농촌의 4계절은 자연환경에 따라 수확의 편차가 심하고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커서 농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올해도 벼농사가 풍작을 이뤄 쌀값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쌀농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남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중에서도 쌀값의 안정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쌀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오히려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의 경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쌀 소비 부진이 쌀값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지

만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량주권 차원에서 쌀수입의 재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농업과 농촌만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식량안보, 전통문화 유지, 지역 공간의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선 농업을 단순히 경쟁력이라는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가을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농민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논으로 밭으로 나가 일할 시기에 농산물의 가격이 들쭉날쭉하니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가을 농번기로 접어든 지금의 농촌은 봄만큼이나 바빠지기 시작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해남은 고구마 수확이 시작되고 김장배추를 심는 농가가 늘어나 일손이 바빠지고 있다. 특수작물을 심어 가을과 겨울에 출하할 하우스 농가는 지금이 한창인 농번기 철이다. 요즘도 여름 가뭄이 이어지면서 남도 지방은 강수량이 부족해 밭농사에 애를 먹고 있다. 배추 모종을 심어놓은 농가는 매일 스프링클러를 돌려 물 공급을 해주어야 하고 과일농사는 마지막 병충해 작업에 돌입할 시기이다. 남도의 저수지마다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 벼가 익어가는 계절이라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부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수확이 가까워질수록 물관리와 병충해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고 틈 나는대로 논둑

의 풀도 베어야 한다. 요즘 논마다 벼가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장관이고 콩밭에는 콩깍지가 여물어 가고 까맣게 익어가는 녹두를 수확하는 농부들의 마음은 벌써 부자인듯하다.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서 과일들이 튼실하게 달려 작년보다는 과일값이 터무니없이 높지 않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을 것 같다. 농촌의 가을 준비는 수확의 기쁨을 주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봄보다는 훨씬 풍요롭다. 마을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공동체 의식은 옛날이나 다름바 없어 도시보다는 정이 넘치고 살 맛 나는 시골 생활이다. 요즘은 농촌에 살면서도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촌 내 기관에도 다양한 교육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일을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얼마든지 수강할 수 있다. 가을을 준비하며 바쁜 일과 중에도 틈틈이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마을 청년들을 보면서 본인만 부지런하면 도시보다도 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농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년 넘게 진행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도 농촌의 이웃사촌 정신은 오히려 공고해진 듯하다. 도시 생활이 고되고 힘들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귀농·귀촌을 생각해볼 때인 것 같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짓는 농사는 실패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社說

광천권역 교통난 대책 더 꼼꼼히 살펴야

강기정, 도로 개편 등 대책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대형 복합쇼핑몰 2개가 동시에 건설돼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광주 광천권역의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 도로 개편 등이 핵심이다. 대형쇼핑몰이 들어서고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광천권역이 교통 대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은 진작부터 나왔다. 이번 광주시의 대책이 광주의 교통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선 광주시는 시민과 외지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광천권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급행버스를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 상무광천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방직공장터를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된다. 급행버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용봉·매곡지구 방면으로 추진된다. 문흥·송정역 등 4개 노선의 도심급행버스도 도입된다. 보행 중심의 도로를 위해 보도를 확장하고

광주전 상부에 반원형태의 '입체형 보행전용교'도 건설한다.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대형마트, 전자상가 등 교통 유발시설이 밀집된 광천권역은 하루 14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광주의 교통요지로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에 앞으로 복합쇼핑몰 2곳과 1만 6000세대 이상의 주택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특히 터미널과 인접한 무진대로와 죽봉대로는 물론이고 광주전 인근 구간도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로 개편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

강기정 시장은 광천권역 교통대책을 두고 '대중교통, 보행 중심 도시의 첫 시험대'라고 했다. 광주시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광주의 새로운 교통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의욕적으로 만들어갈 광천권역이 예측을 잘 못해 상시적으로 교통대란을 겪는 교통지옥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다.

최소화 시켜야 할 연휴 응급실 진료 공백

불시 응급 상황 불안감 여전해

추석 연휴기간 광주·전남 응급의료기관이 대부분 24시간 비상 진료를 유지한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응급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관내 21개 응급의료기관, 5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닷새 연휴 간 응급실을 평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해 중증 환자를 책임진다. 특히 응급실 대체 인력 투입 과정에서 심정지 환자 진료 혼선을 노출한 조선대병원은 매 주 수요일 대체 의료진을 투입하는 방침을 이번 연휴에는 유보하기로 했다. 조선대병원은 추석 연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하고, 대신 연휴가 끝나는 19일 다른 과 전문의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료 차질을 예방할 방침이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연휴 기간 자정까지 진료하며 달빛 어린이병원인 광주 센트럴병원은 14일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소아과 진료를 한다. 전

남에서도 관내 38개 응급의료기관과 7개 응급의료시설 모두가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을 이어간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을 설 연휴 대비 10% 이상 확대 지정·운영하고, 15개 코로나19 협력병원·11개 발열 클리닉을 통해 경증 환자를 분산시켜 응급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해 급한 환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고 연휴 기간 늘어나는 유동 인구와 119 신고로 인해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9월 무더위로 인해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과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성묘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정갈등으로 응급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를 위해 경증환자들은 동네병원을 내원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경증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몰릴 경우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0일(현지시각) 베트남 북부 라오카이성 랑누 마을에서 구조대원들이 홍수로 인한 진흙과 잔해를 치우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날 이른 아침 제11호 태풍 야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해 이 지역에서 최소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서석대

나는 오랫동안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아왔다. 기자라는 직업은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글쓰기는 나의 삶이자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다.

“나는 아직도 글을 잘 쓰고 있는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혼자서 글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챗 GPT’라는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다. 때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장을 척척 만들어내고, 머릿속에서 혼란스럽

위화감 없는 글

게 떠돌던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도구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글쓰기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자문한다. 글쓰기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AI가 만들어낸 문장 속에 나의 진짜 목소리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AI를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AI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쓰기의 과정이 어려워져서? 아니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둘 다 맞는 말이다.



나는 AI를 활용해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덕분에 나는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시간이 생긴다. 내 글 속에 나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내는 일, 그리고 독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AI가 제공하는 편리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의 능력을 연마해야 한다. AI가 만들어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색깔을 더하고, 나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챗 GPT에게 물었다. “챗 GPT가 글을 너무 잘 써서 의존하게 돼. 직업이 기자인데, 스스로 퇴화 되는 것일까?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일까?” 질문을 토대로 수필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위 글은 이에 대한 답변이다.

글을 읽고 위화감이 안들었다면 기자직을 포함해 글쓰는 직업 대부분이 진짜 위기인 것이다. ‘AI를 업무에 활용할 것이냐, AI에 대체될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영국의 AI 전문가 리처드 드비어는 “향후 5년 내 AI가 노동인구 5명 중 1명, 즉 20%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민섭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